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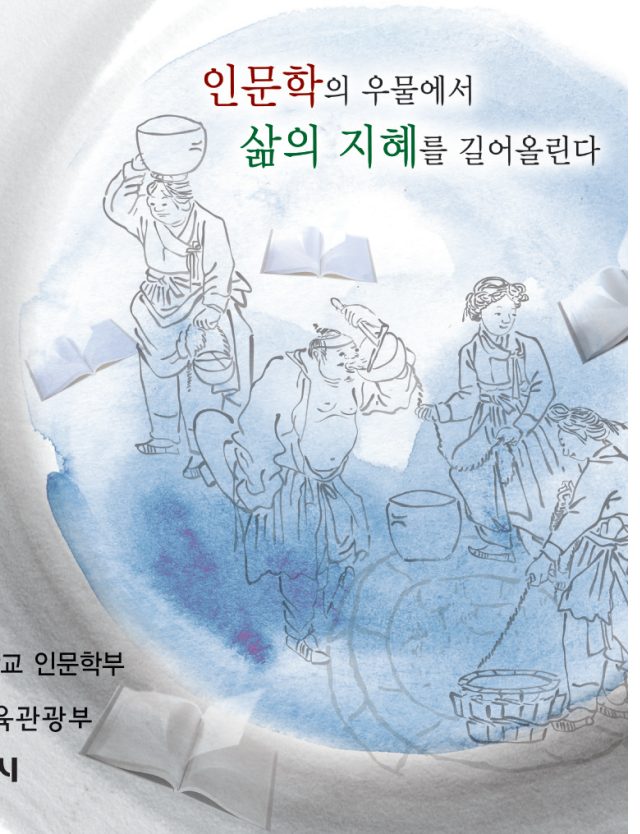
문학, 철학, 사학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에 관해 폭넓고 깊이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 지기를 기대하며 시민인문학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Time Table

<p><b>마을이 세계를 구한다</b></p> <p>김태언 교수 (인제대 영문학부)</p>	<p>6월 - 11일, 18일, 25일 목요일, 19시~21시</p> <p>- 장유도서관 시청각실 -</p>
<p><b>이야기로 떠나는 가야 역사 여행</b></p> <p>이영식 교수 (인제대 역사고고학)</p>	<p>7월 - 16일, 23일, 30일 목요일, 19시~21시</p> <p>- 화정글샘도서관 3층 글샘 II -</p>
<p><b>보이는 세계는 진짜일까</b></p> <p>조용현 교수 (인제대 인문학부)</p>	<p>9월 - 07일, 14일, 21일 월요일, 18시~20시</p> <p>- 시청 소회의실 -</p>
<p><b>동양철학의 흐름</b></p> <p>안중수 교수 (인제대 인문학부)</p>	<p>10월 - 05일, 12일, 19일 월요일, 19시~21시</p> <p>- 칠암도서관 시청각실 -</p>
<p><b>불이사상으로 읽는 노자</b></p> <p>이찬훈 교수 (인제대 인문학부)</p>	<p>11월 - 09일, 16일, 23일 월요일, 19시~21시</p> <p>- 진영한빛도서관 다목적홀 -</p>
<p><b>조선시대의 한시</b></p> <p>강석중 교수 (인제대 한국학부)</p>	<p>12월 - 07일, 14일 21일 월요일, 10시~12시</p> <p>- 김해도서관 신관1층 가락국실 -</p>

# 2009 시민 인문학 강좌

인문학의 우물에서  
삶의 지혜를 길어올린다



| 주최 인제대학교 인문학부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김해시

〈참가자 간식제공〉 문의 : 김해시 평생학습지원과 ☎330-6681

# “삶의 목마름을 가시게 할 여섯 빛깔 인문학 강좌”

**6월**

- 강사 - 김태언 교수 (인제대 영문학부)
- 장소 - 장유도서관 시청각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간디는 근대 산업주의 문명이 가져다주는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한 인류의 행복이란 결국 허망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집요하게 역설하였다. 간디에 의하면, 인도의 참다운 미래는 근대적인 도시가 아니라 자립적인 농촌마을에 달려있었다. 그리하여, 간디는 식민지 시대를 통해서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해온 인도의 70만개의 농촌마을의 부활과 회생 속에서 참다운 독립과 해방뿐만 아니라 진정하게 새로운 인류문명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다. 이번 강좌는 자립적인 공동체의 이상을 꿈꾼 간디의 사상을 살펴보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사유의 장이 될 것이다.

**10월**

- 강사 - 안중수 교수 (인제대 인문학부)
- 장소 - 칠암도서관 시청각실




**동양철학의 흐름**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불교 등 중국철학의 주된 사상적 흐름을 주로 다루는 강좌가 될 것이다. 이 강좌에서는 전통적인 동양철학에서 다룬 철학적 물음과 그에 대한 대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7월**

- 강사 - 이영식 교수 (인제대 역사고고학)
- 장소 - 화정글샘도서관 3층 글샘II




**이야기로 떠나는 가야역사여행**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부산의 『국제신문』에 연재했던 『이영식의 이야기 가야사 여행』을 정리하여 『이야기로 떠나는 가야 역사 여행』을 펴냈다. 이 강좌를 통해 바로 김해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우리 역사의 주인공 역할을 해 온 가야의 생생한 역사와 숨결을 느끼고, 오늘날 그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1월**

- 강사 - 이찬훈 교수 (인제대 인문학부)
- 장소 - 진영한빛도서관 다목적홀




**불이사상으로 읽는 노자**

‘인간답고 행복한 사회가 무엇인가’에 해답을 ‘불이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노자의 『도덕경』이야말로 불이사상의 보고이다. 불이사상은 일다불이(一多不二)와 무유불이(有無不二)로 묶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불이사상을 불교에서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수많은 철학적, 종교적 사상이나 가치관 또는 많은 현자들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다.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서로 의지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세상 만물이 근원적으로 불이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노자의 사상을 현대문명과·미래문명의 연관성 속에 되살려내 몇 가지 전망을 제시할 것이다.

**9월**

- 강사 - 조용현 교수 (인제대 인문학부)
- 장소 - 시청 소회의실



**보이는 세계는 진짜일까**

왜 SF영화로 철학하기를 시도하는가  
‘철학의 중요 문제를 드러내는 데 SF만큼 적합한 장르도 없다’고 전제하면서 ‘철학 고전이나 등장할 추상적인 문제가 SF영화 속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예사롭게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트릭스>는 데카르트의 데몬의 대규모 사고실험처럼 보이고 <모션픽처>는 헤겔의 정신의 영정의 우주론적 버전으로 보인다. 물론 철학은 영화보다 훨씬 다층적이고 복잡하지만 철학함의 동기를 불러넣는 데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강좌는 철학함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쉽게 철학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는 안내관이 될 것이다.

**12월**

- 강사 - 강석중 교수 (인제대 한국학부)
- 장소 - 김해도서관 신관1층 가락국실



**조선시대의 한시**

우리 조상들의 감정과 생각이 녹아 있는 조선시대의 한시를 번역하고 해석하는 강좌이다. 이 강좌에서 우리의 옛 한시가 갖고 있는 멋과 맛을 음미하면서 그 정신세계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던져주는 의미를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